

“그릇을 바꿔라. 내용도 바뀐다”

1면에서 이어서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통해 불교가 바뀔 수 있는 계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본 대정신수대장경이 불교학 기본 텍스트로 사용되는 것은 체제나 양보다는 활자본에 있었다. 고려대장경을 전산화하면 활자화라는 규격화와 컴퓨터가 지닌 효용성을 함께 얻어, 불교학의 기본 텍스트로 통용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불교는 과거 형식 그대로다. 특히 강원은 과거 서당식 경전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였다. 불교는 관습에 갇혀 있었다. 솔직히 답답했다. 경전의 재구성성을 꿈꿨고, 내 식의 불교를 꿈꾸기도 했다.”

틀에 박힌 교리해석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강원교육의 한계를 느낀 것이다. 종림 스님은 교리해석보다 불교적 입장에서 현실사회의 사건을 해석해 내는 불교를 원했다. 불교가 문자 해석에 그쳐서는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문제·사건 중심의 교리가 필요하다. 경전보다 불교적 시각이 중요하다. 즉 연기론을 바탕으로 역사, 생물, 진화, 과학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의 전산화에 평생을 바친 스님은 이미 경전을 버린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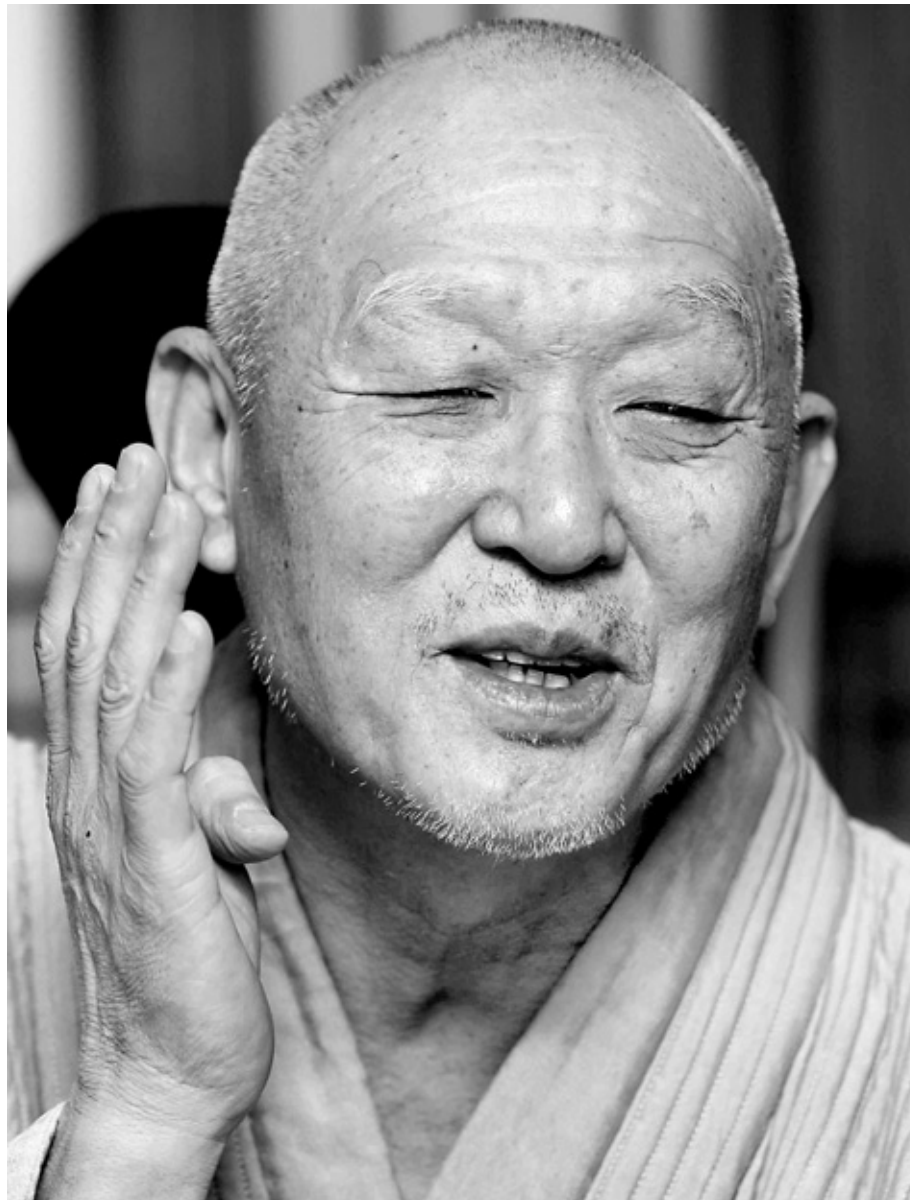
자아의 벽을 깨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정보를 공유하고 다루기 쉽게 함으로써 불교적인 방법론의 확실성을 추구하고, 수행방법이나 태도의 차이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고 봤다.

종림 스님은 “그릇이 바뀌면 그 안에 담기는 내용도 바뀐다. 그릇을 바꾸는 일, 새로운 그릇에 옮겨 담는 일은 도전이고 동시에 시련이다. 정보매체를 바꾸면 달라지기 싫어도 바뀌게 돼 있다”며 미래를 내다봤다.

스님은 고려대장경을 중심으로 한글 대장경, 일본어 대장경, 영역 불전, 산스크리트어, 뽀리어, 중국어 등으로 쓰인 불전을 통합 전산화하는 통합대장경 단계를 밟고 있다. 아직 한글대장경의 전산화가 남았고, 티베트어도 남았다. 미얀마, 대만 등에서 자본을 투자해 통합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합의 구조만 있으면 됩니다. 기초자금이 없고 공동으로 하고 나면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기 시작하면 5-6년이면 됩니다.”

스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교 정보화 사회였다. 불교적 사고와 기록이 곧 불교적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

“체제와 틀만 가져다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불교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덕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 연기는 상하구조가 아니라, 팀과 독립체이면서 관계를 맺는 사이이지. 사이버 공간이 인드라망의 세계라고 한다면 그 실용성·효율성이 증명돼야 설득력을 갖는다고”.

이고, 그럴 때 재미있는 구성이 나온다”고 했다. 해인사 사보(寺報) <해인>지를 만들 때도 그랬고, 연구소에서 일할 때도 그랬다. 그것이 스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2007년 종림 스님과 이어령 前 문광부 장관, 루이스 랭카스터 美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

을 너무 크게 그랬나봐. 불교문화유산이기는 했지만 문화행사였으면 했는데...”

고려대장경 1000년 사업이 추진되는 현재의 상황은 스님이 애초 꿈꾼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문화계는 문화계 대로 각기 움직이고 있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제도적인·사회적·개인적 소외를 극복하고, 조직이나 권력의 폭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새 시대를 꿈꾼 듯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정치·경제의 틀 안에서 피상적인 숫자 1000년 행사를 집중하는 듯하다. 무엇보다 종단의 무관심은 스님이 크게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다.

“종단이 뭘 하나 해야할 텐데... 아무리 그래도 불교계 관심이 중요하네. 뒷바라지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가운데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대구시와 함께 뜻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6월 27-29일 대구에서 ‘2011 고려대장경 1000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종교·문화·사회의 벽을 허물기 위한 팔관회, 대장경 독송대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효림박물관에서 대장경 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해 2004-2010년 한일공동 초조대장경 디지털 구축 및 영인출판을 했다.

재조조한 한역 정장 본문을 한역대장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모범적인 대장경으로 만든 고려 시대 수기(守記) 법사가 종림 스님이 아닐까? 스님의 씩스러운 웃음이 또 터졌다.

“시끄러워~우리끼리는 각(刻)하다 도망가서 잡혔다다가 그 과보를 받아서 이생에 왔다고들 해. 때론 경전 보기도 싫어.”

1993년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오직 생각과 열정으로 일을 해냈다. 돈도 조직도 없는 연구소가 유지될 수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하는 스님.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은 하지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어 좋다. 이제는 일도 힘들고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때지”라고 말한다. 스님의 부석한 얼굴은 혼신을 다한 흔적이었다.

뻘한 이야기를 스님은 즐겁게 들어주고 답했다. 대화를 마치고 스님은 자신의 책 <종림잡설 망랑의 노래> 한 권을 주며 “부족한 부분은 참고해도 돼”라며 쿨하게 건넸다. 돌아와 보니 현대판 원시인 수첩은 해독불능의 글투성이다. 무슨 잡설이 들어 있을까 펼쳐본 스님의 책 속에는 오늘 했던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겨 있다. 늘 뻘한 질문을 일삼는 중생, 하나의 진리를 팔만대장경으로 풀어준 부처님의 뜻이 1000년 동안 내려온 이유다.

글=이상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대장경은 민의의 표상이다”

고려대장경에는 위기 속에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가를 수호하고자 한 호국정신이 담겨 있다. 고려대장경은 왕실만의 의지 하에 간행된 것이 아니었다. 대장경은 거란과 몽고의 외침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 지력에 의지한 과정을 거쳐 완결됐다.

고려대장경은 국란 중에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구심력으로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한 과정인 동시에 결과물이다. 불심이라는 종교적 이상에 국가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기원이 더해져 이 같은 결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신라와 고려, 조선 시대까지 면면히 흘러오던 민중을 아우르는 구심점 역할을 한 불교의 위상은 현대에 들어서며 크게 추락했다.

‘소통’ 불교계 여전한 화두 민의를수령 대장경 정신으로

‘2009 문화관광부 한국 종교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불교 신자 수는 2위에 처해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교 신자는 373만 여 명으로 개신교 신자 504만 여 명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가톨릭 신자 301만 여 명과 비슷하다. 개신교와 가톨릭 신자를 합한 기독교 전체 신자와 비교하면 절대적인 열세에 처해있는 것이다. 인구과밀화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통계는 불교의 암울한 미래를 짐작케 한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불교계가 시대 의사를 수렴하고 소통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불교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일어난 94년 종단 개혁의 성과물인 중앙종회가 계파 정치를 흘러가고 당시 개혁 주체 중 하나였던 재가신도들의 의

견이 외부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이다. 정용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은 “봉은사 사태 등으로 국민인식이 악화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종도 신뢰 회복과 화합,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디지털시대이다. 90년 대부분 진행된 디지털화는 생활 그 자체가 됐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시대의 특징은 바로 소통과 수렴, 그리고 반영이다.

대장경 속에는 놀랍게도 이런 디지털 시대의 정신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고려대장경에는 8만1350판의 5200만 여 글자가 있다. 경판에 삼장을 새긴 판각수(板刻手)들은 ‘일자삼례(一字三禮)’ 구양순 필체를 한자 한자 새겨 넣었다. 각각 다른 판각수들이 마치

한 사람이 쓴 듯 글씨를 새긴데에는 그 정성과 소통의 과정이 있었다.

특히 제작과정에서는 원전과 대조해 철저히 교정 및 교감했다. 송나라·거란본과도 대교했다. 여러 불교경전을 수집하고, 이를 편집 교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민족적인 불사가 성료한 데에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게 한 그 원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 것도 있었다.

온 대중들의 마음이 모였기에 8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장경 경판들은 썩지도 않고 뒤틀리는 일없이 온전히 보존돼 내려오는 것이다.

민의를 하나로 모은 대장경 조성의 참 정신은 정부의 무분별한 문화유산 인식과 개신교계의 불교편협이 이어지는 현재 불교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노덕현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이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대장경 1000년을 맞은 지금 소통을 바탕으로 한 화합의 정신이 필요하다.

불교, 문자 해석만 고집하면 무용지물 경전 아닌 불교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

미래세대는 이제 전산화된 대장경을 갖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꿈꿀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학자를 중심으로 전산화 된 경전을 바탕으로 통합 활용하는 일이다.

이런 작업에는 상하 승속의 개념이 없다. 스님은 “좋은 안을 내놓은 사람이 대장

의 해’로 공식 선언했다. 당시 천년의 해는 명예와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닌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꿈꾸고자 시작했다.

“정치, 경제,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문화적인 마인드로 바꾸려고 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세상을 꿈꿨어. 자축의 의미도 있었는데 그림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재단법인 선학원